



Hl Seoul 서울형안심자판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신고번호	제 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주소				내부점검 정상가동 상태 여부
신고자				
전화번호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표시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원재료	보충일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

서울시 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발 벗고 나섰다

- 내용물 신뢰성 보장하는 안심자판기 점검표 부착 적극 추진
- 최고의 위생자판기를 위한 안전인증제도도 마련

서울시 모대학교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S씨. 그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자판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판기를 점검해 소비자들이 정말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런지라 매번 자판기 위생문제가 마스크를 통해 불거질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절로 든다. 얼마 전에도 마스크에 자판기 위생 불량 문제가 불거져 매출이 크게 준바 있다. S씨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 참여 업체로 신청을 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 표시판을 받아 부착을 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판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점검판에 원재료의 유통기한, 보충일자, 제조국가 등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내부 점검 결과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표가 부착이 된 탓인지 매출이 늘었다. 이에 고무된 S씨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의 내부성능을 체크해 최고의 위생자판기에게 내준다는 마크 인증도 신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S씨의 사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자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스토리텔링이다. 서울시가 왜 자판기 위생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안심자판기 사업을 진행하는 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세부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에 사업 방향을 따라가 봤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사업 추진 배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자판기는 식품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원료의 유통기간, 원산지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없으므로 영업자에게 원재료의 유통기간, 보충일자, 제조국가 등을 표시하여 시민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일반인들의 상상력을 시정에 반영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한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4월 8일,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교체시기와 원산지 등에 대한 내용을 눈에 띄는 곳에 크게 표시하도록 강제성을 두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자판기의 차별화로 믿고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작년의 경우 자판기 벨라민 커피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이 되었던 적이 있었음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또 자동판매기 특성상 현장 관리자 없이 운영되므로 위생문제가 자주 대두된다는 점, 타 식품 안전 업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는 이유로 점검의 우선순위에 밀려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1차적으로 안심자판기 점검 표시판 마련 배포

서울시는 이 안심자판기 추진 사업은 서울시 모든 자판기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우선적으로 관공서, 병원,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내 설치 식품자동판매기 2,631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판기를 대상으로 안심자판기 점검 표시판을 배포해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 표시판에는 제품명, 제조국가, 원재료 보충일 등이 표시되고, 주기적으로

점검표시판 부착 및 표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접근 가능한 시설 내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아직은 이 제도가 법적인 강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내로 제한이 되어 실사가 이루어지는 것. 차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법 개정을 유도해 파급력을 높일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최고의 위생 자판기에 부여하는 안심인증제도도 실시

서울시의 계획은 단순한 내용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최고의 위생 자판기에 부여하는 안심인증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자판기 관련 정책이 일시적 반짝 정책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자판기 위행문제에 깊게 개입해 산업계의 위생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홍귀순 팀장은 "일부 자판기 운영자들이 서울시가 왜 안심자판기 추진해 일을 번거롭게 만드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오산이다"며 "오히



▲ 안심자판기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간담회 광경

려 내용물관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검증함으로써 매출향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렇게 자판기 위생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를 서두르는 것은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인증을 하는 것이 서울시 시정의 큰 정책 줄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대형마트, 제과점을 대상으로 안심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으로써 매출 향상 효과가 크다고 한다.

자판기도 이러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위생문제로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지 말고, 안심자판기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위생 마인드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서울시가 최고의 위생자판기에게 별도의 마크 인증을 부여하면 당연히 매출상승은 수반된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고의 위생자판기를 지향하는 안심자판기 인증은 까다롭기 그지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관에 기계 관리해야하는 사항은 기본이고, 시설관리, 운영관리, 안전경영관리, 기본 관리 등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업체가 이 최고의 안심자판기 인증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확정될 인증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점검 심사를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기준을 무사히 통과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최고의 위생자판기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까다로운 기준들을 뚫고 마크를 부착하는 자판기는 대외적으로 당당히 위생성을 자랑하게 된다.

자판기 내구연도 5년 이내 기준은 포함될 듯

현재 서울시는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

계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말 실효성이 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안심자판기 인증기준 마련하는데 있어 자판기 내구연도 5년 이내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오래된 노후자판기, 중고자판기들이 신형자판기에 비해 위생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매스컴 보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오래되면 부품의 내구성도 떨어지고 부식율도 높아지는 등 위생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고의 위생자판기를 지향하는 안심자판기 인증에 오래된 자판기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까다로운 인증기준에 걸맞게 제품자체도 오래되지 않아 보기도 신뢰감이 드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 최소한도가 5년이다. 협회의 자판기 내구연도 5년 이내로 제한하자는 건의에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정책마련을 하면서 노후, 중고자판기의 위생상의 취약성을 확인한바 있기에 오래되지 않은 자판기를 대상으로 하자는 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할 전망이다.

기타 성능기준들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좀 무리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인증기준들은 걸러질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자판기 위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서울시 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은 과연 운영업체들이 그 실효성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안심자판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자판기 위생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은 쉬워진다. 서울시가 1차적으로 진행하는 안심자판기 점검표 부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

산업계는 안심자판기 사업을 자판기 위생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판기 위생에 대한 불신을 나날이 악화가 되는데 아무 대응도 안하고 산업계가 가만있을 수는 없다.

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운영업자들이 참여 의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실패한 행정이 되게 된다.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느냐가 과제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의 수를 어떻게든 늘려야 정책의 추진력을 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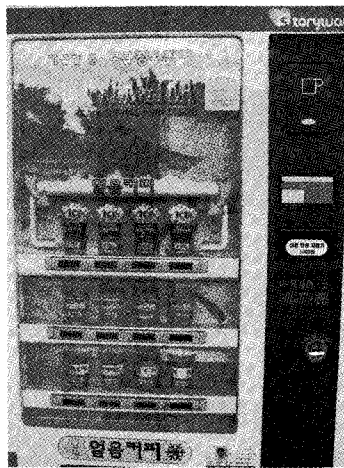
서울시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등을 초청해 간담회 및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줄 의향이 있으니 어떻게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조업체에서는 좀 더 획기적인 위생자판기의 개발 상품화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근본적으로 현행 믹싱 볼 방식의 커피자판기는 위생에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 차원 더 높은 위생자판기가 나와 주어야 안심자판기의 인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운영업체의 안심자판기 점검관 부착 참여는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의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합에서는 안심자판기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산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추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과연 실효



성이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판기 업계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판기 위생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고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에 있어 서울시는 좋은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라는 브랜드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안심자판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높다.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는 없다. 그 취지가 좋고, 꼭 가야할 방향의 정책이라면 일단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산업계는 안심자판기 사업을 자판기 위생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자판기 위생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악화가 되는데 아무 대응도 안하고 산업계가 가만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가 자판기 위생성 향상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이에 적극 참여해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 자판기 위생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본다면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정책이 무엇보다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